

트럼프 “이란에 로키 대응”…美언론 “경제압박 강화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 문제에 대해 “우리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약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그들과 부분적으로 협상(semi-negotiating)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약시오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며 이란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란이 군인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으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75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전쟁으로 인한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줄다리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잘 해결될 것”이라며 “항상 잘 해결되곤 한다. 이걸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지 않았다.

또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분노나 좌절감을 표하지도 않았다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약시오스는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다른 미국 언론들도 추가 군사 행동보다는 경제적 압박에 무게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의 트럼프 내셔널 베드민스터에서 열린 LIV 골프 뉴욕 대회 최종 라운드에 끝난 후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란과 부분적 협상 중…돈 없는 이란 상황 지켜보고 있어”

인터뷰서 추가 공격 언급없어…이란 향한 분노 표출 자제

를 둔 것으로 해석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당분간 중단한 가운데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란이 결국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새로운 군사 행동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취소했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신속한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이란이 미국을 향해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자드르 사무총장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병력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보다 한층 강경한 주장이다.

“감옥 같다”…6개월째 호르무즈에 발 묶인 선원들

선박 500척에 6000명 고립…피격 위험 노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원들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IMO) 집계를 인용해 현재 선박 500여 척에 탄 선원 6000명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개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선박 운항이 제한된 영향이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는 한때 2만명에 달하는 선원이 수주간 고립됐으며,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부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간 뒤에도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MOU 체결 이후 바닷길이 열린 것으로 판단하고 해협에 진입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

영국의 해운 전문 매체 로이즈리스트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유조선 중 65척은 MOU 발표 이후 진입한 선박이라고 분석했다.

고립된 선원들은 대부분 인도와 필리핀 국적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잇따른 선박 공격 위험에 노출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는 상태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선원 1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선원들의 실종과 조난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선원들은 전투를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무고한 사람들”이라며 “선박들 역시 미사일이나 드론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비오 라모스 인도 해사 노조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원들의 처지가 “마치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선원들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가 사실상 무너진 뒤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간 이란과 연계되지 않은 선박 가운데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52척에 불과했다.

이란과 연계된 선박 32척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통행량은 전쟁 전 통행량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오만과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선박들은 이란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